

**담당 :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 02)560-4448 ㅣ Mobile : 010-7680-3103 ㅣ E-mail : media@klpga.org**

**배포 일시 : 2025년 5월 29일(목) 16:00 ㅣ 보도 일시 : 2025년 5월 29일(목) 16:00**

**대회 공식기자회견 코멘트**

**◈ 대회개요**

|  |  |  |
| --- | --- | --- |
| 1 | 대 회 명 |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
| 2 | 기 간 | 2025년 5월 30일(금) ~ 6월 1일(일) |
| 3 | 장 소 | 더스타휴 [휴(OUT) / 스타(IN) 코스] |
| 4 | 주 최 | Sh수협은행, MBN 매일경제 |
| 5 | 주 관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 6 | 총 상 금 | 10억 원 (우승상금 1억 8천만 원) |
| 7 | 코스길이 | 파72 / 예선: 6,787야드, 본선: 6,678야드 |
| 8 | 참가인원 | 120명 |
| 9 | 주요  출전선수 | 이예원, 박현경, 박보겸, 김민선7, 홍정민, 고지우, 지한솔, 박지영, 정지효  김시현, 송은아, 이채은2, 이소영, 박민지 등 |
| 10 | 중계방송 | SBS골프, 네이버, 다음카카오, U+모바일tv |
| 11 | 방송일정  (생중계) | [1라운드] 11시 ~ 17시  [2라운드] 11시 ~ 17시  [최종라운드] 10시 ~ 16시 |

**◈ 공식기자회견 코멘트 – 대회 조직위 제공**

**Q. 이번 대회 출전 소감 및 각오는?**

**김민별**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당시 대유위니아·MBN 여자오픈)은 2023년 루키 때 출전하고 올해 처음 출전한다. 루키 때 연장전에서 진 기억이 있는데, 그 아쉬운 기억을 이번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기억으로 만들고 싶다.

**박민지** 각오는 언제나 우승이다. 1차 목표는 1라운드에서 탑 10에 드는 것이고, 그 목표를 충족한다면 우승으로까지 다가가는 게 최종 목표다. 더스타휴CC는 코스가 예쁘고 상태도 좋기 때문에 느낌이 좋은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예원** 작년에 우승을 해서 좋은 기억이 있는 코스다. 좋아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실수 없이 3라운드 마무리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현경** 2022년(당시 대유위니아·MBN 여자오픈)에 연장전에서 패배한 기억이 있는 대회다. 현재 탑10 기록에 있어서 커리어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 1차 목표로는 탑10에 등극하여 연속 탑10을 이어가고 싶다. 그 다음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놓치지 않고 우승까지 하고 싶다.

**박지영** 작년에는 맹장 수술 때문에 대회에 불참했는데 올해는 너무 다행히도 참석하게 되었다. 지난주보다 샷감과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1라운드부터 최대한 타수를 많이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올해 첫 승을 달성하고 싶다.

**홍정민** 지난주에 대회를 쉬어서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상태다. 더스타휴CC 같은 양잔디 골프장을 좋아해서 차분히 나의 플레이를 이어가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첫날 (박)현경 언니, (이)예원이와 같은 조인데, 다같이 잘해서 마지막 날에도 같은 조에서 만나고 싶다.

**Q. (이예원) 작년 노보기로 우승했다. 작년 기억을 되돌리면 어떻게 노보기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비결이 궁금하다**

**이예원** 작년에는 샷감과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그린을 자신 있게 공략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보기가 나오지 않았다. 올해도 그린에만 잘 올린다면 노보기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Q. (박현경) 지난 대회에서 노보기로 우승을 했는데 이번주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박현경** 사실 선수 생활하면서 노보기 우승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다.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보면 지난 주에는 안 되는 플레이가 특별히 없었고 핀 위치 공략을 잘했다. 과감하게 노릴 땐 노리고 조금 위험한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노보기 우승을 할 수 있었다. 더스타휴CC도 그린 언듈레이션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핀위치 공략에만 잘 집중한다면 노보기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Q. 연습라운드를 하며 코스에서 까다롭거나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홍정민** 더스타휴CC 코스는 티샷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에이밍(조준)이 안 나오는 홀이 몇 개 있어페어웨이를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지영** 8번홀이 가장 까다롭다. 시야가 가려진 블라인드 홀이고, 세컨드 경사도 심하다. 경기를 하며 가장 주의해야 할 홀이라고 생각한다.

**박현경** 8번홀 티샷이 다른 홀보다 유독 까다롭다. 티박스가 뒤에 있어서 완전한 블라인드 홀이고, 2단 언듈레이션이 있는 홀이기 때문에 그린 공략을 잘해야 한다. 17번홀도 거리가 멀고 그린 경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반 8번, 후반 17번홀에서만 타수를 잃지 않는다면 괜찮은 경기를 할 것 같다.

**이예원** 16번홀은 홀 길이는 짧아도 언덕 때문에 공이 떨어지는 지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17번홀은 전장이 긴 홀이라 그것에 맞는 공략을 해야 할 것 같다. 두 홀에서 타수를 잃지 않는다면 다른 홀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박민지** 더스타휴CC 코스는 페어웨이를 잘 지켜야한다. 그린 언듈레이션이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티샷에서 페어웨이를 잘 지켜야 타수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과감하게 해야할 홀과 지켜야 할 홀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영리하게 판단해서 플레이 해야한다.

**김민별** 앞에서 언니들이 말한 대로 8번홀 17번홀이 가장 까다롭고, 실수가 나오면 어려워지는 홀이라고 생각한다. 연습라운드를 하며 두 홀만 보기 하지 말자고 정했다.